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

특히 安浩相氏의 批判에 答함(二)

跛龔生

□그런데 周易에 나타난 形體意識은 文王周公의 見解와 孔子의 見解가 다르고 또 孔子의 見解와 程子朱者의 見解도 같지 않다. 文王은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하니라』고 하였는데 이에 對한 程子の 註解는 『上古聖人, 始創八卦, 三才之道, 備□, 因而□之, 以□天下之變, 故六創而成卦, □乾爲乾, 乾天也, 天者, 天之形體, 健者, 天之性情, 夫天, 導言之則, 道也, 天几不□是也, 分而言之, 以形體□之天, 以主宰謂之帝, 以功用謂之鬼神, 以性情謂之乾, 乾者萬物之始, 故以天爲陽爲父爲君』이라 하였다.

그런데 程子의 『天을 傳言하면 道이라』한 『道』는 勿論 太極을

이 □이 어니와 그러므로 分言하여 形體로 말하면 天이요. 主宰로 말하면 帝라하여 太極의 形體와 技能을 論破하였다. 그리고 帝는 事物의 理 卽 法則을 體現한 者이니 따라서 伊川의 實體觀念 卽天을 形體로 認識한 唯物思想은 文王의 太極思想의 必然한 發展이라 할 수 있다. 그리 하여 『乾者, 萬物之始, 故爲天爲陽爲父爲君』이라 하여 天의 形體로서의 物性を 闡明하고 또 그의 四德을 生生變化의 次序에 依하여 段階的으로 究明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孔子所□天行健이라는 健子の 義에 何等의 神秘性を 付치안코 『健而無息之□乾』이라 하여 形容詞로 論破한 것과 또 □□□物의 □目□理에 依하여 天의 個性 및 그 個性의 特殊한 情□를 簡單한 文章에 含□表現한것은 자못 事物에 通□한 □□이다. 생각컨대 伊川이 孔子의 觀念論을 支持할만 固執치 말고 實體觀念에 徹底하여 有終의 努力을 費하였더면 저의 太極思想의 唯物論의 體系는 거의 成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朱者의 形體意識은 어떠한지는 다른 體系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즉 時代的 □□意識에 沈□되어 伊川의 主張이 그 意識과 合치 아니함을 理由로하여 그를 非難함으로써 自家의 一門을 立코저하였다. 그리 하여 朱子는 『或問, □者天之性情, 曰(朱子), 健乾也, 健之體爲性, 健之用爲情』이

라 하였다.

-그런데 伊川의 『健者天之性情云云』의性情은 性是 事物의 體이오. 情은 用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元來性是 事物의 族을 彙하고 □□ 辯하는 者이오. 情은 各各 天賦의 性에 依하여 發露하는 여러 個性의 各殊한 情□을 이룸이니 그러므로 伊川의 『天之性情云云』은 周易의 □目原理에 依하여 天의 個性과 및 그 個性의 情操를 밝힌 것이다. 그리 하여 伊川은 天의 個性의 本質은 어떠한가하면 健하고 또 그 情操는 어떠한가하면 또한 健하하였다. 그러므로

朱 子の 『健之體爲性, 健之用爲情』 이라함은 聞彙의 順序로써 事物의 體用을 삼은 牽強附會일뿐만아니라 『健之用爲情』 이라하면 健이라는 事物의 形容詞가 情으로써 實體의 意識이 된다. 卽 조흔사람이라는 『조흔』은 元來사람의 情을 形容한 말이오. 그의 實體는 사람인데 이제 만일 朱子の 表現과 같이 好之用是人也云云하면 그의 主客體□한 語法을 웃지 아니할 者없을 것이다.

-그런데 文王의 形體意識은 누구보담도 周公의 解說이 完全히 究明하였다. 그리 하여 文王이 乾 元코 亨코 利코 貞하나라한 乾卽天을 周公은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 하야 生命體로 規定하였다. 다시 말하면 初九는 陽物인 生命體의 第一段階를 이룸이오. 潛能은 그러한 生命體가 아즉 胎中에 潛在함을 말한 것이다. 그를 先人들은 聖人으로 代稱하였다. 여기서 天에 對한 認識이 混亂케되였다. 그리 하여

或 者는 天을 人格者로 말하고 或者는 擬在로 말하였다. 그것이 모다 文王 周公의 實體觀念과 合치아니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리고 陽推開天은 『穹蒼蒼天也, 春爲蒼天, □爲□天, 秋爲□天, 冬爲上天』 이라 하여 四個天을 區別하였는데 그것은 天을 人格者로 말한 것도 아니오. 또 擬在로 推論한것도아니다. 그런데 從來의 天에 對한 解說은 爾雅의 釋天이 무엇보담도 □威잇는것 이어니와 爾雅와 周易은 同時代의 著作인것으로보아서 周易의 天의 觀念이 爾雅의 그것과 다르지 아니할 것도 생각할 수 잇는 일이다. 따라서 文王의 乾卽天이나 坤卽 地는 人格者도 아니오. 擬在도 아니오. 各各個性과 固有的 技能을 具備한 實在로서의 形體인것을 알 수 잇다. 그리고 生命體와 認識은 決코 人格者的 認識과 同一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더 論陳할만한 研究가 없을 뿐만 아니라

所謂 □籍에서는 그를 具體的으로 論斷한 記錄을 求할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그리고 孔子의 形體意識이 完全한 觀念論인것은 別論코자하거니와 孔

子の著述이라하는 繫辭傳의 形上形下論과 歷史觀이 唯物的인것은 注意할만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朱子は 孔子說의 矛盾을 指摘하면서 繫辭傳의 『沒理會』를 □論 하엿을뿐만아리나 『曰也者，別說□』라 하여 孔子의 □□이 文王의 經文과 다른 것을 論破하엿다. 이로써 보면 從來 周易을 研究한 後學者들이 五里霧中에서 彷徨한것이 理由없는 일이다.

孔子는 文王의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하니라』한 經文을 論斷하엿으므로 『□曰大哉라 乾元이여 萬物이 始□하나니 乃統天이로다. 雲行雨施하야 品物이 流形하나니라 大明始終하면 六位時成하나니 時樂六龍하야 以御天하나니라 乾道變化하야

各 正性命하나니 保合大和하야 乃利貞하니라. 首出庶物하니 萬國이 咸寧하나니라』고 하엿다.

『첫째 孔子의 大哉云云의 質은 文王思想의 形體로서의 天을 質한것이 아니오. 主宰로서의 道를 質한 것이다. 그러므로 乾元의 乾은 形體로서의 天의 性이 아니오. 主宰로서의 道의 性이다. 또 元은 形體로서의 天의 始를 이룸이 아니오. 主宰로서의 道의 始를 이룸이다. 그러므로 天에 □치 안코 道에 □하야 始하니 道가 이에 天을 統한다 하엿다. 여기서 統이라함은 主宰를 意味한 말이다. 그리 하여 文王思想으로해서는 形體로서의 元이 具備한 道 卽 自然作用이 孔子에 있어서는 主宰로서의 道가 되어 形而上學의 基礎가 形成되엿다』(朝光十一月所載拙文『周易의 正中原理와 政治思想』의 結論中에서) 그런데 伊川은 『大哉乾元，質乾元，始萬物之道大也，四德之元，猶五常之仁，偏言則一事，專言則包四者，

天 道始萬物，物始於道也，乾道變化，生育萬物，洪□高下，各以其類，各止性命也，天所賦爲命，物所受爲性，天爲萬物之祖，天爲萬邦之宗』이라 하엿다. 그리고 朱子は 『伊川語錄中，說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說得太深，無捉損處，易傳其手筆，只云四德之元，猶五常之仁，偏言則一事，專言則包四者，又曰(伊川)仁者天下之公，善之本也，易傳只此兩處說仁，說得公平，實學者當精看此等處云云』이라 하엿다. 그런데 朱子가 伊川의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라 한말을 『說得太深，無捉損處』라 非難한것은 『見群龍하되 無首라야 吉이라』한 周易의 平等觀念을 理解치못한 俗人的 觀察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周易의 平等觀念과 大問意識은 여기저기서 發見할수있다. 그리고 이 伊川의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云云』은 勿論 太極思想의 全體觀念의 表現인데 이를 沒却한 朱子의 過誤는 적은 것이 아니다.